

##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



전 정 희/팔성장연구소장, 국민일보 기자

**자** 식에게만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하라. 요즘  
— 아내는 신바람이 나있다. 동대문시장을 오가며  
원단을 사오고,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단으로 주문 받  
은 물량을 만들어 내느라 여념이 없다. 어린이 옷과 어  
른 원피스를 비롯한 옷종류, 식탁보와 침대보, 에어컨  
커버와 빨래바구니 커버, 소품류…심지어 카페트까지  
두터운 원단으로 만들어 낸다. 연극 의상 주문도 받아  
만들어내는 걸보고 아내가 신기하기까지 했다. 아내 자  
랑이 팔불출이라지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.

아내는 홈패션을 배우지 않았다. 뒤늦게 계기만 있었  
을 뿐이다. 아내는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구식 재봉틀을  
잡고 무얼 해본답시고 끙끙거렸다. 구식 재봉틀의 불편  
함 때문인지 그녀는 좀처럼 기술이 늘지 않았다. 그걸  
지켜본 나는, 아내도 먼 미래에 자신의 일이 있어야 허  
허롭지 않겠다 싶어 어려운 살림에도 선뜻 30여 만원을  
들여 최신형 미싱을 사주었다. 그것이 마흔 하나가 된  
아내의 큰 기쁨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.

가정용 미싱 하나로 아이들과 자신의 집을 꾸며 나가  
는 것이 더 할수 없는 기쁨이고, 주위 사람들로부터 숨  
씨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한 모양이다. 전업주부  
인 아내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웠을 때, 그리고 결혼  
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틀이 마련됐을 때 아내는 그때  
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여유가 생긴다. 학교 간 아  
이들과 회사 출근한 남편으로 텅 빈 집에서의 여유…커피  
한 잔과 FM방송의 음악프로는 더없는 평화를 가져  
다 준다. 그러나 이러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항상 행복

하지만은 않음을 금방 깨닫는다.

‘나는 뭐지?’ 하는 자아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전업주부  
의 갈등이 시작된다. 그것은 바로 존재감의 문제이다.  
아내로서나 아이 엄마로서가 아니라 ‘자연인’으로서의  
공허로움이 적으로 자리한다. 전업주부인 자신의 공과  
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함…수영장을 다니고 예  
어로빅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성질의 것  
이다. 이 부분은 아내에게 세심한 남편도 결코 채워줄  
수 없다.

드라마 ‘아들과 딸’로 유명한 방송작가 박진숙 선생  
도 이런 공허함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했다. 그때  
그녀는 독서로서 사색의 세계를 넓혔고 40대의 늦은 나  
이에 드라마작가가 됐다고 한다.

집사람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업주부들은 한 가지 꼭  
명심할 점이 있다. 자녀들에게는 희생에 가까울 정도로  
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  
색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. 그런 투자는 빠듯한 생활비  
의 문제가 아니다. 생활비라는 것이 언제 풍요로운 적이  
있던가?

나는 일을 하는 아내의 기쁨을 남편으로서 지켜보면  
서 ‘저건 가족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녀만의 기쁨이  
자 성취감’이라고 생각했다. 그리고 그녀의 재주가 정말  
놀라워 진심으로 한마디 했다.

‘여보, 난 평생 잔머리만 굴리며 사는 것 같은데 당신  
은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걸 보면 부끄  
러워. 나도 당신처럼 손으로 뭘 만들어 내고 싶어.’ **이정호**